

李白〈贈〉詩 譯解(3)

— (제11수에서 제16수까지)

趙成千·趙得昌*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제11수 魯郡에서 적박동을 만나고서
 - 2) 제12수 폼적되다가 사면 받고 동양으로 부임해 가는 위 경조참군을 만남 2수 - 제1수
 - 3) 제13수 폼적되다가 사면 받고 동양으로 부임해 가는 위 경조참군을 만남 2수 - 제2수
 - 4) 제14수 단양 황산의 처사 주유장에게 드림
 - 5) 제15수 옥진공주의 별장에서 장맛비 내리는 데 張 衛尉卿께 드림 2수 - 제1수
 - 6) 제16수 옥진공주의 별장에서 장맛비 내리는 데 張 衛尉卿께 드림 2수 - 제2수
3. 결론

1. 서론

李白的 가장 이른 詩文集은 唐代 李陽冰이 편찬한 『草堂集』 10권이었는데 산 일되었다. 현재의 통행본은 '宋蜀本'으로 北宋 宋敏求(1019~1079)가 증각한 『李太白文集』 30권이다. 송축본 『李太白文集』은 '古風' 59수 및 '樂府詩'를 실은 후 그 다음부터는 내용별로 '歌吟', '贈', '寄', '別', '酬答', '遊宴', '登覽', '行役', '懷古', '閑適', '懷思', '感遇', '寫懷', '詠物', '題詠', '雜詠', '閨情', '哀傷' 등으로 구분하였다.

* 乙支大 敎養學部 助敎授, 協成大 中語中文學科 副敎授(교신저자 chodc38@lycos.co.kr)

이에 元代 蕭士贊의 『分類補注李太白詩』, 清代 王琦의 『李太白詩集注』 등의 주요 판본들도 이러한 형식을 취하였다. 송축본 『李太白文集』 제8권에는 '贈'詩를 설정하여 123수를 싣고 있다. '贈'詩란 자신이 느낀 바, 표현할 바, 생각한 바가 있을 때에 그것을 시로 써서 친구 및 知人에게 보내어 자신의 감정과 뜻을 기탁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의 제목에 '贈'字가 들어 간 경우가 많다.

이백의 '贈'詩는 豪放, 超脫, 謫仙의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은일 및 친구나 지인에게 자신의 出仕 및 천거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자신의 현실적 생활문제를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많다. 이것은 '贈'詩의 특색이며 이백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이백의 '贈'詩 완역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이로서 제1수에서 제5수까지의 역주의 결과를 「李白〈贈〉詩 譯解(1)」을 통하여 『中國學論叢』 47집(2015.5.30)에 발표하였다. 제5수에서 제10수까지의 역주의 결과를 「李白〈贈〉詩 譯解(2)」를 통하여 『中國語文論叢』 제69집(2015.6.30)에 발표하였다.

본고는 이백의 '贈'詩 제11, 12, 13, 14, 15, 16수 총6수를 역주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底本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고, 그 형식은 原文을 제시하고 번역을 하였으며 註釋을 달았으며 이어 校記, 詳釋, 解說을 붙였다. 번역은 자구의 直譯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미의 순통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意譯을 하였다. 시적인 어감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註釋은 자구의 풀이는 물론 그와 관련된 用例, 典故 등을 들어 설명하고 번역함으로써 학술성을 제고하였다. 校勘은 詹鏞 主編의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교감이 있을 경우 추가하였다. 詳釋은 逐字 번역을 더욱 상세하게 보충하면서 행간의 함의를 풀어내어 설명하였다. 解說은 시에 대한 해제, 연대, 역대 의견 등을 덧붙여 전체 시를 해설하여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본론

1) 제11수 魯郡에서 적박통을 만나고서(東魯¹⁾見狄博通²⁾)

去年別我向何處, 작년에 나와 헤어져 어디로 갔는고?
 有人傳道遊江東.³⁾ 누군가 말하길 강동을 유람한다는데.
 謂言挂席度滄海,⁴⁾ 돛 올려 푸른 바다를 건넌다 하니
 卻來應是無長風.⁵⁾ 돌아올 때는 큰 바람 없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네.

〈校記〉

제목의 '東魯'가 『唐人萬首絕句』에는 '魯國'으로 되어 있다.

제4구의 '度'가 劉本⁶⁾에는 '渡'로 되어 있다.

〈詳釋〉

작년에 그대는 나와 이별한 뒤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전하길, 그대는 강동으로 가서 노닌다고 하더라. 돛을 올려서 푸른 바다를 곧바로 건넌다 하니, 돌아올 때는 마땅히 큰 바람 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解說〉

이 시의 창작시기에 대하여 郁賢皓는 開元 말기⁷⁾, 詹鉉은 天寶5년(746)⁸⁾으

-
- 1) 東魯: 魯郡의 별칭, 唐代에 河南道에 속한다. 지금의 山東省 兗州市.
 - 2) 狄博通: 狄仁傑의 증손, 戶部郎中 光嗣의 손자. 『新唐書·宰相世系表』에 “博通은 梁國文惠公인 狄仁傑의 증손, 戶部郎中인 光嗣의 손자이다(博通, 梁公狄仁傑之曾孫, 戶部郎中光嗣之孫)”라고 되어 있다. 『元和姓纂』 권10 「天水狄氏」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狄仁傑은 納言, 內史令의 벼슬을 하였으며, 梁國文惠公으로 봉해졌다. 光嗣, 光遠, 景昭를 낳았다. 光嗣는 戶部郎中이다. 손자는 博通, 博濟이다(仁傑, 納言, 內史令, 梁國文惠公, 生光嗣, 光遠, 景昭. 光嗣戶部郎中, 孫博通, 博濟)”라고 하였다. 杜甫의 「寄狄明府博濟」에서 “梁國文惠公의 증손은 나의 이종사촌 동생이고, 장형의 백미는 하늘이 다시 열어 주었다(梁公會孫我姨弟, 長兄白眉復天啓)”라고 하였는데 ‘長兄’은 博通을 말한다.
 - 3) 江東: 오늘날 安徽, 江蘇남부와 浙江 북부 지역을 말한다.
 - 4) “謂言挂席度滄海”句: ○ 挂席: 돛을 달다. ‘掛席’으로도 쓴다. 揚帆, 掛帆과 같은 뜻이다. ○ 滄海: 동해를 말한다.
 - 5) “卻來應是無長風”句: ○ 卻來: ‘却來’로도 쓴다. 唐代의 口語로 ‘돌아오다’의 뜻이다. ○ 長風: ‘大風’의 뜻이다. 『宋書·宗慤傳』의 “원컨대, 장풍을 타고, 만 리의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고 싶네(願承長風, 破萬裏浪)”에 그 용례가 있다.
 - 6)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중 『李翰林全集』 42卷.

로 보았다. 두 사람 모두 李白이 魯郡 瑕丘(지금의 兗州)에서 지은 것이라 하였다. 이 시에 대하여 朱諫은 『李詩辨疑』에서 “말은 얇고 뜻은 험소하니 이백의 작품이 아니다(辭淺意蹙, 非白作也)”⁹⁾라고 하였지만, 詹鐸은 狄博通이 『新唐書·宰相世系表』에 보이는 점을 근거로, “이 시는 후인의 위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此詩當非出於後人僞作)”¹⁰⁾라고 하였다.

이 시는 4구 28자로 매우 간략한 필치이지만, 狄博通과의 깊은 우정을 매우 꼭진하게 묘사하였다. 이 시의 언어는 매우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감정은 매우 진지하며 돈후하다. 자구이면에는 시인의 친구에 대한 관심, 염려, 기원 등이 充溢된다. 이로써 시인과 狄博通과의 우정을 나누는 예술 형상이 매우 생동적이고 짙진하게 묘사되어 “부르면 나올 듯(呼之欲出)”¹¹⁾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 시는 ‘掛席’·‘滄海’·‘長風’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작은 편폭에서도 광대한 기상을 느끼는 의경을 구성하였다. 이 작품의 묘사 특색은 발문만 회답이 없는 수법을 사용하여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더욱 절실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제12수 편적되다가 사면 받고 동양으로 부임해 가는 위 경조참군을 만남 2수 - 오 땅에서(見京兆韋參軍量移東陽二首吳中)¹²⁾

(其一) (제1수)

潮水還歸海, 조수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데

7)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 臺北: 三民書局, 2011, 433쪽.
8) 詹鐸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三)』,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1295쪽.
9) 위의 책, 1296쪽에서 재인용.
10) 위의 책, 1296쪽.
11) 蘇軾의 「郭忠恕畫贊序」에 나오는 말이다.
12) ○ 京兆: 지금의 陝西省 西安市이다. ○ 韋參軍: 성이 韋인 참군으로 이름은 미상이다. ○ 參軍: 錄事參軍의 약칭이다. 이것은 당나라 때 禁軍, 王府, 都督府 등에 설립되어 있던 군사 혹은 행정기관의 명칭이며, 이 기관의 장의 명칭이기도 하다. 부절과 각인을 장관하고, 문서를 부송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京兆府에도 있었는데, 명칭을 司錄參軍이라고 하였다. 정7품에 해당되는 벼슬이었다. ○ 量移: 편적되어 가던 관리가 사면을 받아 가

流人卻到吳.¹³⁾ 유배인은 도리어 오 땅에 이르렀네.
 相逢問愁苦, 그대 만나 근심과 고초를 묻다가
 淚盡日南珠.¹⁴⁾ 눈물이 일남 땅의 진주처럼 쏟아지는구려.

〈校記〉

『唐人萬數絕句』에는 제목에 ‘京兆’라는 글자가 없다.

〈詳釋〉

바다의 조수는 강으로 밀려 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법인데, 편적당해 가던 그대 사면을 받았지만 도읍에서 멀리 떨어진 오 땅에 왔다. 그대를 만나 그동안의 근심과 고초를 묻다 보니, 눈물이 일남 땅 인어가 눈물을 흘려 나온 진주처럼 쏟아진다.

가운 곳으로 가서 직책을 맡는 것이다. 『舊唐書·玄宗紀』의 “천하에 대사면을 내려, 좌강군(역주: 죄로 인해 도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폄적되어 가서 직책을 맡는 관리)을 도읍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직책을 맡게 하였다(大赦天下, 左降官量移近處)”에 그 용례가 있다. ○ 東陽: 지금의 浙江省 金華市에 속해 있는 東陽市이다.

- 13) “流人卻到吳”句: ○ 流人: 유배인, 유랑인. 여기에서는 유배인의 뜻으로 쓰였다. 『莊子·徐無鬼』에 “그대는 윌나라 流人の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나라를 떠난 지 며칠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알던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기뻐하옵습니까(子不聞夫越之流人乎? 去國數日, 見其所知而喜)”라고 하였는데, 司馬彪는 “流人은 죄를 지어 유배당한 자이다(流人, 有罪見流徙者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 吳: 지금의 江蘇省 남부와 浙江省 북부 일대를 가리킨다.
- 14) “淚盡日南珠”句: 日南은 漢나라 때의 郡 이름으로 지금 베트남 남부 지역이다. 『文選』권 5 左思 의 「吳都賦」에서 “인어가 슬퍼하여 진주의 눈물을 흘렸다(淵客慷慨而泣珠)”라고 하였다. 劉涓子 이 이에 대해 “민간에서 전해내려 오는 얘기가 있다. 인어가 물속에서 나와서는 사람의 집에 기거하며 여러 날 동안 ‘縮’을 팔았다. ‘縮’은 대나무 안에 있는 하얀 막이다. 인어는 갈 때에 주인에게 그릇을 달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릇 가득히 나온 진주를 주인에게 주었다(俗傳鮫人從水中出, 曾寄萬人家, 積日賣縮. 縮者, 竹孚兪也. 鮫人臨去, 從主人索器, 泣而出珠滿盤, 以與主人)”라고 주석을 달았다. 여기에 그 전고(전고)가 있다. 그리고 漢나라 郭憲의 『別國洞冥記』권2의 “吠勒國은……장안에서 9천리 떨어져 있고 일남에 있다. 그곳의 사람들은 키가 7척이나 되고, 목지 않고 내려온 머리가 발뒤꿈치까지 닿는다. 무소와 코끼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닌다. 코끼리를 타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보물을 취하는데, 그 때 인어의 집에 머물며 눈물의 진주를 얻는데 그것은 인어가 울어서 흘린 진주로 또한 ‘泣珠’라고도 불렀다(吠勒國……去長安九千裏, 在日南. 人長七尺, 被髮至踵. 乘犀象之車, 乘象入海底取寶, 宿於鮫人之舍, 得淚珠, 則鮫所泣之珠也, 亦曰泣珠)”에도 그 전고(전고)가 있다. 庾信 「擬連珠」의 “이로써 일남의 마른 방합은 밝은 달처럼 빛을 발하는 야광주를 머금은 듯하네(是以日南枯蚌, 猶含明月之珠)”에 그 용례가 있다.

〈解說〉

이 시는 이백이 폼적되어 가다가 사면을 받은 韋參軍을 우연히 만나 그의 고난을 슬퍼하며 시를 써서 그에게 준 시이다. 『繫年』에서는 이 시를 開元 27년(서기 739년)에 지은 것으로 보며¹⁵⁾, “『舊唐書·玄宗紀』에 의하면, 개원 중에 좌강군 量移(역주: 주 12) 참고)를 두 차례 실시하였다. 하나는 개원 20년에 있었고, 하나는 개원 27년에 있었다. 개원 20년에 이태백이 마침 安陸(역주: 지금의 湖北省 安陸市)에 머물러 있었는데, 東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마도 이 시는 이 해(역주: 개원 27년) 5월에 지은 듯하다(按『舊唐書·玄宗紀』, 開元中左降官凡兩度量移近處:一在開元二十年, 一在開元二十七年. 開元二十年太白正居安陸, 去東陽甚遠. 疑詩之作在本年五月)”¹⁶⁾라고 하였다. 『校注』에서는 韋參軍이 海南으로부터 ‘폼적되어 가다가 사면 받아 임지로 가는 도중(量移)’이었지만, 반드시 東陽 근처에서 이백과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¹⁷⁾ 이에 詹鐸은 海南에서 ‘量移’되어 가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제목에 사용된 ‘見’을 볼 때 東陽에서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첫째 수에서 ‘流人’이 뭇 땅에 와서 이백과 ‘相逢’하는 것과 둘째 수에서 ‘他年’에 ‘金華渡’에서 손잡고 ‘新安’으로 구경 가자고 약속하는 시구를 보더라도 두 사람이 東陽에서 만났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⁸⁾

첫째 수에 대해 唐汝詢은 『唐詩解』 권21에서 “이것은 참군이 멀리 폼적당한 것을 탄식한 것이다. 오 땅은 본래 潮水가 들고 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여 시흥을 일으켰다. 조수가 항상 바다로 돌아가는데, 참군은 어찌하여 도읍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오 땅에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이다. 근심과 고초를 물었기 때문에 눈물이 쏟아진 것이다. 일남 땅은 진주가 나는 곳인데, 위참군이 그곳에 가야 했다. 때문에 울음과 눈물이 많아져서 장차 이 곳의 진주와 함께 쏟아져 내린다고 한 것이다(此歎參軍之遠謫也. 吳本潮水之地, 故取以起興. 言潮尚歸海, 參軍何

15) 詹鐸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三)』, 1297쪽.

16) 위의 책, 1297쪽에서 재인용.

17) 위의 책 1297쪽에서 詹鐸이 인용한 것을 정리하였음.

18) 위의 책, 1297쪽.

不朝京而反遊吳耶? 因相問愁苦, 而淚爲之盡也. 日南產珠, 韋將往焉, 故言泣淚之多, 將與此珠俱盡耳)”¹⁹⁾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吳昌祺는 『刪訂唐詩解』에서 “일남은 단지 눈물을 말하려고 빌려 쓴 것이다(日南, 只借以言淚)”²⁰⁾라고 평하였는데, 詹鍇은 이에 근거하여 “위참군이 일남에서 진주가 나는 곳에 가는 것은 아니다”²¹⁾라고 하였다.

첫째 수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제1구에서 제2구까지로 바다의 조수도 강으로 밀려 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데, 京兆의 韋參軍이 京兆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 땅에 온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둘째 단락은 제3구에서 제4구까지로 東陽에서 韋參軍을 만나 그의 근심과 고초를 묻다가 눈물을 흘리며 韋參軍의 처지를 애달파하며 동병상련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수에 대해 嚴評本에서는 “다만 위 두 구만 읽어도, 바로 눈물이 흐른다(只讀上二句, 便堪墮淚)”²²⁾라고 하였으며, 또한 명나라 사람이 “진주 같은 눈물은 뛰어난 말인데, 아마도 첫 구에 ‘海’가 와서인 것 같다. 만약 嶺南[역주: 宋代 이전에는 廣東, 廣西, 海南, 베트남을 포괄한 지역이었음] 땅에서 이것을 사용했다면 더욱 절묘했다(珠淚是佳話, 蓋亦頂首句‘海’字來, 若嶺南用之尤妙)”²³⁾라고 한 批語를 실고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제13수 편적되다가 사면 받고 동양으로 부임해 가는 위 경조참군을 만남
2수 - 오 땅에서(見京兆韋參軍量移東陽二首 吳中)

(其二) (제2수)

聞說金華渡,²⁴⁾ 듣자니 금화의 나루터는

19) 위의 책, 1298쪽에서 재인용.

20) 위의 책, 1298쪽에서 재인용.

21) 위의 책, 1298쪽.

22) 위의 책, 1299쪽에서 재인용.

23) 위의 책, 1299쪽에서 재인용. 여기서 명나라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단지 ‘明人’으로 표기되어 있음.

24) 金華: 唐代的 縣名, 지금의 浙江省 金華市.

東連五百灘. ²⁵⁾	동쪽으로 오백탄에 이어져
全勝若耶好. ²⁶⁾	若耶溪 보다 경치가 더 좋다고 하니
莫道此行難.	이번 행로 힘들다 말게.
猿嘯千谿合.	원숭이 울음소리 여러 산골짜기에서 울리고
松風五月寒.	솔바람에 오월인데도 춥구나.
他年一攜手.	다른 해 함께 손잡고
搖艇入新安. ²⁷⁾	배 저어 신안강으로 들어가세.

〈詳釋〉

浙江 金華縣의 나루터는 동쪽으로 金華江의 오백탄과 서로 이어져 있다고 들었다. 이 지역은 紹興縣 남쪽에 있는 若耶溪 보다 경치가 더 좋다고 하니, 그대는 도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부임하는 이번 행로가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가기를 바란다.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천산만학에서 여기저기 울러 퍼지고, 소나무 우거진 숲에서 이는 바람 때문에 따뜻한 오월인데도 한기를 느낀다. 만약 다른 해에 우리 함께 손잡고 놀 수 있다면, 배를 저어 신안강으로 가서 경치를 구경합시다.

〈解說〉

이 둘째 수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제1구에서 제4구까지로 金華縣 나루터 부근의 경치가 널리 알려져 있는 若耶溪 보다도 좋으니 도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量移’됨을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고 있다. 둘째 단락은 제5구에서 제6구까지로 金華縣 나루터 부근의 경치를 원숭이 울음소리와 소나무

25) 五百灘: 지금의 浙江省 金華市 金華江 중에 있다. 『大清一統志』에 의하면 옛날에 배가 이곳을 지날 갈 때 500명이 끌어야지 겨우 지나갈 수 있어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26) 若耶: 若耶溪를 이룸. 若耶溪는 지금 浙江省 紹興市 남쪽에 있다. 若耶山에서 발원되어 북쪽으로 鑑湖로 들어간다. 鑑湖가 없어진 후, 浙江省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方輿勝覽』권6 「浙東路紹興府山川」에 “若耶溪는 會稽縣의 동남쪽에 있는데, 북으로 25리를 흘러 가 照湖(즉 鑑湖)와 합류한다. ……西施가 연꽃을 따고 歐冶子가 검을 만든 곳이다(若耶溪, 在會稽縣東南, 北流二十五裏與照湖(即鑑湖)合. ……西施採蓮, 歐冶鑄劍所)”라고 하였다. 郁賢皓는 若耶溪 옆에 이전에 西施가 비단을 빨았던 浣紗石 古蹟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若耶溪를 浣紗溪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27) 新安: 新安江을 이룸. 신안강은 지금의 安徽省 歙縣 黃山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절강성 경계에 이르러서 錢塘江으로 들어간다. 『元和郡縣志』권25 「江南道睦州 清溪縣」에서 “신안강은 歙州의 黟縣 경계로부터 흘러 들어와서는 동쪽으로 흘러 浙江으로 들어간다(新安江, 自歙州黟縣界流入, 東流入浙江)”라고 하였다.

숲에서 이는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셋째 단락은 제7구에서 제8구까지로 타년에 기회가 되면 배타고 신안강으로 놀러가자며 다시 한 번 위로를 하고 있다. 嚴評本에서는 “둘째 수 4구……모르는 자는 아래 2구를 좋아하고, 이는 자는 위 4구를 좋아한다(其二首四句……不知者愛下二句, 知者愛上四句)”²⁸⁾라고 하였으며, 또한 명나라 사람이 “맑고 참신하여 세상 밖의 운치를 가지고 있다(淸脫有塵外之致)”²⁹⁾라고 한 批語를 실었다.

4) 제14수 단양 횡산의 처사 주유장에게 드림(贈丹陽橫山周處士惟長)³⁰⁾

周子橫山隱,	주처사 횡산에 은거하는데
開門臨城隅.	문을 여니 성 모퉁이로세.
連峯入戶牖,	이어진 봉우리들은 문과 창으로 들어오고
勝概凌方壺. ³¹⁾	빼어난 경치는 방장산을 능가하네.
時枉白紵詞. ³²⁾	때론 일없이 白紵詞 노래를

28)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三)』, 1300쪽에서 재인용.

29) 위의 책, 1300쪽에서 재인용.

30) 贈丹陽橫山周處士惟長: ○丹陽: 지금의 安徽省 馬鞍山市 當塗縣 丹陽鎮이다. 『元和郡縣志』 권28 「江南東道宣州」에 “『尚書·禹貢』에서는 揚州 지역이다.……한무제 때 단양군으로 바뀌었다(禹貢揚州之域, ……漢武帝改爲丹陽郡)”라고 하였다. ○橫山: 江寧, 溧水, 當塗 세 현의 경계 지역에 있으며, 安徽省과 江蘇省을 경계 짓는 산이며, 橫望山이라고도 한다. ○周處士惟長: 성이 周이고, 이름이 惟長인 처사이다. 처사는 제주와 덕이 있으나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초야에 묻혀 살던 사람을 가리킨다.

31) “勝概凌方壺”句: ○勝概: 빼어난 경치 ○凌: 능가하다. 朱諫은 “凌은 歷이다. ‘거기를 지나다’의 의미이다(凌, 歷也, 言過之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方壺: 신화 속에 등장하는 바다에 있는 仙山 중의 하나. 이 단어는 『列子·湯問』의 “발해의 동쪽에 몇 억만 리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골짜기가 있는데 실로 바닥이 없는 골짜기이다. 그 아래에 바닥이 없어, 歸墟라고 부른다. ……그 가운데에 산이 다섯 개 있다. 첫째는 岱輿라 하고, 둘째는 員嶠라 하고, 셋째는 方壺라 하고, 넷째는 瀛洲라 하고, 다섯째는 蓬萊라 한다(渤海之東, 不知其幾億萬裏, 有大壑焉, 實爲無底之穀, 其下無底, 名曰歸墟. ……其中有五山焉: 一曰岱輿, 二曰員嶠, 三曰方壺, 四曰瀛洲, 五曰蓬萊)”에 나온다. 『拾遺記』에서는 方壺를 方丈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바다에 있는 三神山의 하나라고 여겼다.

32) 白紵詞: 吳 땅의 노래로 白紵舞를 추면서 부른다. 『輿地紀勝』 권18 「江南東路太平州」에 “白紵山은 당도현 동쪽 5리에 있다. 『寰宇記』에 의하면, 초산이라 불렀는데, 桓溫이 기녀를 거느리고 산을 유람할 때 악기를 연주하며 白紵歌 부르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白紵山在當塗縣東五里, 按『寰宇記』名楚山, 桓溫領妓遊山, 奏樂好爲白紵歌, 因名)”라고 하였다.

放歌丹陽湖, ³³⁾	단양호에서 소리 높여 부르는데
水色傲溟渤, ³⁴⁾	물 색깔은 큰 바다를 깔보고
川光秀菰蒲, ³⁵⁾	물결 빛은 줄풀과 부들보다 빼어나네.
當其得意時,	그대 뜻을 얻었을 때
心與天壤俱, ³⁶⁾	마음은 천지와 함께 하네.
閑雲隨舒卷, ³⁷⁾	한가로이 구름 따라 마음을 폈다 오므리니
安識身有無?	어찌 육신이 있고 없음을 알리오?
抱石恥獻玉, ³⁸⁾	옥을 안고 가서 옥을 바친 일을 부끄러워하고

- 33) 丹陽湖: 지금의 安徽省 馬鞍山市 當塗縣 동남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매몰되어 사라졌다. 옛 명칭은 巨浸이었으며, ‘南湖’ 혹은 ‘西蓮湖’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太平府志』에 “단양은 예부터 붉은 버들나무가 많아, 한번 보면 모두가 붉었기 때문에 丹楊이라고 불렀다. 楊과 陽이 음이 같아서, 마침내 丹陽湖라고 칭하게 되었다(丹陽舊多紅楊, 一望皆丹, 故曰丹楊, 楊與陽同音, 遂稱丹陽湖)”라고 하였다. 남송 張敦頤가 편찬한 『六朝事跡編類』에서 “이전에 당나라 이백이 이 호수를 유람하였는데, 호수의 경치를 아주 좋아하여, 이에 뜻을 펼치고 술을 싣고 호수를 마음껏 왕래하며 시를 지었다……(昔唐李白嘗遊此湖, 酷愛其景, 乃張帆載酒, 縱意往來, 而作詩……)”라고 하였다.
- 34) “水色傲溟渤”句: ○ 傲: 거만하다. 업신여기다. 깔보다. 朱諫은 “傲는 慢이다. 이것으로 저것을 업신여기다를 말한 것이다(傲, 慢也, 言以此而欺彼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 溟渤: 溟海와 渤海. 보통 大海를 총칭한다. 『文選』권31 鮑照「代君子有所思」의 “못을 봤는데 명발과 같네(穿池類溟渤)”에 그 용례가 있다. 이 글에 李善이 “명발은 두 바다의 이름이다(溟渤, 二海名)”라고 주석을 달았다.
- 35) 菰蒲: 줄풀과 부들. 謝靈運 「從斤竹澗越嶺溪行」의 “줄풀과 부들은 맑고 얕은 것을 신경 쓰지 않네(菰蒲冒清淺)”에 그 용례가 있다.
- 36) 天壤: 하늘과 땅. 천지. 張協 「詠史」의 “고결한 품성은 만대에 떨치고, 이름은 천지와 함께 하네(淸風激萬代, 名與天壤俱)”에 그 용례가 있다.
- 37) 舒卷: 펴고 말다. 『淮南子·傲眞訓』에 “혹은 가득 차고 혹은 줄어들고 혹은 오므라들고 혹은 퍼지는데, 모두 때와 더불어 변하고 바뀐다(盈縮卷舒, 與時變化)”에 그 용례가 있다.
- 38) “抱石恥獻玉”句: 楚나라 사람 卞和(혹은 和氏)가 옥을 바친 고사와 관련된다. 『韓非子·和氏』에 “초나라 사람 화씨가 楚山中에서 옥들을 주워서 받들고서 厲王에게 그것을 바쳤다. 여왕이 玉人으로 하여금 그것을 감정하게 하였는데, 옥인이 말하였다, ‘돌입니다.’ 왕은 화씨가 속였다고 여겨, 그의 왼쪽 발의 발꿈치를 잘랐다. 여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하자, 화씨는 또 그 옥들을 받들어 무왕에게 바치니, 무왕이 玉人으로 하여금 그것을 감정하게 하였는데, 또 말하였다, ‘돌입니다.’ 무왕은 또 화씨가 속였다고 여겨, 그의 오른쪽 발의 발꿈치를 잘랐다. 무왕이 죽고 문왕이 즉위하자, 화씨는 이에 그 옥들을 안고 초산 아래에서 삼일 밤낮을 우니 눈물이 다하고 피가 이어졌다. 왕은 이를 듣고 사람을 시켜 그 까닭을 물어 ‘천하에 월형을 받은 자가 많은데, 그대는 어째서 슬피 우는가?’ 라고 하였다. 화씨가 ‘저는 월형을 받은 것을 슬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보옥을 돌이라 폄평한 것을 슬피하는 것이며 곧은 선비를 사기꾼이라 부르니, 이것이 제가 슬피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하였다. 문왕은 이에 玉人으로 하여금 그 옥을 다듬게 하여 보옥을 얻고 마침내 명하여 ‘화씨의 구슬’이라 하였다(楚人和氏得玉璞楚山中, 奉而獻之厲王. 厲王使玉人相之, 玉人曰, ‘石也.’ 王以和爲

沉泉笑探珠.³⁹⁾ 못 속에 들어가 구슬 얻은 일을 비웃네.
 羽化如可作, 신선이 될 수 있으면
 相攜上清都.⁴⁰⁾ 서로 손잡고 옥황상제 사는 곳 올라 가세나.

〈校記〉

英華⁴¹⁾에는 제목에 '橫'이 없다.

제2구의 '開'는 咸本⁴²⁾에서는 '閉'로 되어 있는데, 詹鍈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

誑, 而刖其左足, 及厲王薨, 武王即位, 和又奉其璞而獻之武王, 武王使玉人相之, 又曰, '石也.' 王又以和爲誑, 而刖其右足. 武王薨, 文王即位, 和乃抱其璞而哭於楚山地下, 三日三夜, 泣盡而繼之以血. 王聞之使人問其故曰, '天下之刖者多矣, 子奚哭之悲也.' 和曰, '吾非悲刖也, 悲夫寶玉而題之以石, 貞士而名之以誑, 此吾所以悲也.' 王乃使玉人理其璞而得寶焉, 遂命曰, '和氏之璧')"라는 전고가 있다.

- 39) 探珠: 구슬을 얻다. 『莊子·列禦寇』에 “어떤 사람이 송나라 왕을 알현하고 수레 열 대를 사받았다. 그 열 대의 수레로 장자에게 자랑하였다. 장자가 말했다. ‘황하 가에 쭉으로 밭을 째서 먹고 사는 가난한 집이 있었소. 그 집 아들이 못 속에 들어갔다 천금의 가치를 지닌 구슬을 얻었소.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소. ‘들을 가져와서 이것을 깨뜨려버려라. 천금의 가치를 지닌 구슬이란 반드시 아홉 겹의 심연 속에 사는 흑룡의 턱 밑에 있는 것이다. 네가 이 구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흑룡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만약 흑룡이 깨어 있었다면, 네가 어찌 그것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라고. 지금 송나라의 깊이는 아홉 겹의 심연만큼 깊고, 송나라 왕의 무서움은 흑룡만큼 무섭소. 그대가 수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송나라 왕이 자고 있었기 때문임에 틀림없소. 만약 송나라 왕이 깨어 있게 된다면 그대는 양념 가루처럼 될 것이오.’(人有見宋王者, 錫車十乘, 以其十乘驕稱莊子. 莊子曰: “河上有家貧恃緯蕭而食者, 其子沒於淵, 得千金之珠, 其父謂其子曰: ‘取石來鍛之. 夫千金之珠, 必在九重之淵, 而驪龍頷下, 子能得珠者, 必遭其睡也. 使驪龍而寤, 子尚奚微之有哉?’ 今宋國之深, 非直九重之淵也; 宋王之猛, 非直驪龍也. 子能得車者, 必遭其睡也. 使宋王而寤, 子爲齏粉夫!)”라는 전고가 있다. 여기에서 探驪得珠(흑룡을 찾아서 구슬을 얻다)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하여, “큰 위험을 무릅쓰고 큰 이익을 얻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에는 “문장이나 용어가 주제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朱諫은 “探珠라는 것은 이로움을 좋아함이다(探珠者, 嗜利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 40) “羽化如可作, 相攜上清都”二句: ○ 羽化: 원 뜻은 날개가 생겨 하늘을 난다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사람의 몸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됨을 뜻한다. 『晉書·許邁傳』의 “도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것을 羽化라고 일컫는다(好道者皆謂之羽化矣)”에 그 용례가 있다. ○ 清都: 상제가 사는 곳. 『列子·周穆王』에 “왕은 실로 그곳을 청도이며 자미궁이고, 선악이 울러 퍼지는 균천으로 상제의 거소라고 여겼다(王實以爲清都紫微, 鈞天廣樂, 帝之所居也)”라고 하였다. 王琦는 “羽化는 신선이 되어 가는 것이다. 清都는 상제가 거하는 곳이다(羽化, 成仙而去也. 清都, 上帝所都)”라고 주석을 달았다.
- 41) 明隆慶 간행본에 中華書局 영인본을 참고한 『文苑英華』.
- 42) 明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 83권 중의 『李翰林集』 30卷.

다.

제5구 '時枉'의 '枉'은 咸本·胡本⁴³⁾·全唐詩本⁴⁴⁾에는 '作'으로 되어 있다. '時枉'에 대해 劉本の 注에서 "時枉은 어떤 판본에서 '時作'이라고 한다(時枉一作時作)"라고 하였다.

제11구의 '舒卷'은 蕭本⁴⁵⁾·郭本⁴⁶⁾·朱本⁴⁷⁾·嚴評本⁴⁸⁾·胡本에는 '卷舒'로 되어 있다.

제12구의 '識'은 英華⁴⁹⁾에서는 '議'로 되어 있다.

제16구는 宋蜀本에서 "相攜上清都(一作攜手止清都)"라고 되어 있는데, 咸本·蕭本·玉本⁵⁰⁾·郭本의 경우 "一作攜手止清都"라는 주가 없다. '相攜'는 英華에서는 '攜手'로 되어 있다.

〈詳釋〉

주처사가 단양 횡산에 은거하고 있는데, 그가 머물고 있는 거처에서 문을 열어 보니 성 모퉁이와 가깝다. 주위에는 산 봉오리들이 이어져 있는데 마치 집의 문과 창으로 들이 닳치는 느낌이 들 만큼 가깝고, 주위의 경치는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을 능가한다. 주처사는 때때로 공연히 오 땅의 노래인 白紵詞를 단양호에서 소리 높여 부른다. 단양호의 물 색깔은 溟海와 渤海 같은 큰 바다를 갈בל 만큼 뛰어나고, 물의 빛깔은 줄풀과 부들 보다 빼어나다. 주처사 그대는 뜻을 얻었을 때는 그대의 마음은 하늘과 땅과 함께 한다. 그대는 한가로이 흘러가는 구름을 따라 마음을 폈다가 오므렸다하니, 자신의 육신이 있는 지 없는 지를 느끼지 못하는 경계에 빠진다. 그대는 은거하는 처사로서 초나라 사람 卞和가 옥을 안고 가서 초나라 왕에게 바친 일을 부끄러워하고, 황하가 가난한 집의 아들이 못 속에 들어가 구슬 얻은 일을 비웃는다. 그대 만약 몸에 날개가 돌아 신선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서로

43) 清順治7年(서기 1650년) 胡震亨의 『合刻李杜詩通』 중 『李詩通』 21卷.

44) 上海古籍出版社가 영인한 揚州詩局的 刻本 『全唐詩』와 中華書局的 點校本 『全唐詩』.

45) 元刻本 『分類補注李太白詩』 25卷.

46)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 30卷.

47) 隆慶六年(서기 1572년)에 간행된 朱謙의 『李詩選注』 13卷 및 『李詩辨疑』 2卷.

48) 明崇禎3年(서기 1630년)에 嚴滄浪과 劉會孟이 評點한 『李杜全集』 중 『李太白集』 22권.

49) 明隆慶 간행본에 中華書局 영인본을 참고한 『文苑英華』.

50) 嘉靖25年(서기 1545년) 玉几山人의 校本 『分類補注李太白詩』 25卷.

손 잡고 옥황상제 사는 곳에 함께 올라가자.

〈解說〉

이 시는 周處士를 만나서 주처사가 은거하는 곳의 풍경을 묘사하고 주처사의 생활 및 심정을 묘사하고 자신도 주처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의 창작연대에 대해 郁賢皓는 미상이라고 하지만⁵¹⁾, 安驥의 주에서는 天寶9년(서기 750년)에 이백이 金陵에서 廬山으로 가는 길에 當塗를 지나가던 때에 지었다고 한다.⁵²⁾ 이 시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제1구에서 제4구까지로 주처사가 은거하는 곳의 주위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둘째 단락은 제5구에서 제12구까지로 주처사가 마음껏 단양호에서 노래 부르고 천지와 하나 되어 한가로이 지내는 은거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셋째 단락은 제13구에서 제16구까지로 초나라 사람 卞和가 옥을 바친 일을 부끄러워하고, 황하가 가난한 집의 아들이 구슬 얻은 일을 비웃으며 은일을 최고로 여기는 주처사를 묘사하고 함께 등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嚴評本에서는 “水色傲溟渤, 川光秀菰蒲” 2구가 “다만 호수의 뛰어나고 빼어남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但稱湖之傲秀, 其人可知)”⁵³⁾라고 평하고 있으며, 또한 명나라 사람의 “4구마다 한번 씩 전환하였는데, 앞 세 단락의 기교가 거의 같아서 생동감이 적음을 약간 느끼게 한다(四句一轉, 前三節調法略同, 微覺板)”⁵⁴⁾라는 批語를 실었는데 참고할 만하다.

51)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 437쪽.

52) 詹鎡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三)』, 1305쪽 참조.

53) 위의 책, 1305쪽에서 재인용.

54) 위의 책, 1305쪽에서 재인용.

5) 제15수 옥진공주의 별장에서 장맛비 내리는 데 張 衛尉卿께 드림
2수-장안에서(玉眞公主別館苦雨贈衛尉張卿二首⁵⁵⁾長安)

(其一) (제1수)

秋坐金張館,⁵⁶⁾ 가을 비 내리는데 옥진공주의 별장에 앉아 있노라니
繁陰晝不開,⁵⁷⁾ 하늘에 깔린 짙은 어두움은 대낮인데도 개이질 않네.

- 55) 玉眞公主別館苦雨贈衛尉張卿: ○ 玉眞公主: 본명은 李持盈(서기 692년-762년)으로 字가 玄玄이며, 武則天의 손녀, 睿宗의 딸이고 玄宗의 여동생이다. 출궁하여 여도사가 되었다. ○ 別館: 별장의 의미이다. 玉眞公主의 별장(別館)은 지금의 陝西省 周至縣의 終南山 기슭에 있다. 지금의 樓觀臺가 이것이다. 王維의 「奉和聖製幸玉眞公主山莊」, 儲光羲의 「玉眞公主山居」 등의 시 가운데 「山莊」, 「山居」 등은 모두 '別館'과 같은 의미이다. 蘇軾의 「壬寅二月十八日遊樓觀復過玉眞公主祠堂」은 終南山의 玉眞公主 별장의 유적지를 묘사한 것이다. 元代 朱象先의 『古樓觀紫雲衍慶集』 卷下의 “지금 樓觀臺가 있는 終南山 북쪽 기슭에는 玉眞公主의 祠堂이 있다. 세속에서는 그 지역을 郎(邸라고도 함)宮이라 하였는데, 옥진공주의 별장 터라고 여겼다(今樓觀南山之麓有玉眞公主祠堂存焉, 俗傳其地曰郎(一作邸)宮, 以爲主家別館之遺址也)”라고 하였다. ○ 苦雨: 비가 오랫동안 내리다. 『埤雅·釋天』에서 “비가 오랫동안 내리는 것을 苦雨라고 한다(雨久曰苦雨)”라고 하였다. ○ 衛尉: 衛尉卿 즉 張珀를 말한다. 『舊唐書·職官志三』에 “衛尉寺에는 卿一人〔從三品〕이 있다. …… 卿의 직책은 나라의 工具 및 文物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데, 總武庫·武器·守宮 세 관청의 관리이다(衛尉寺, 卿一員〔從三品〕……卿之職, 掌邦國器械文物之事, 總武庫·武器·守宮三署之官屬)”라고 하였다. ○ 張卿: 張說의 둘째 아들인 張珀를 말한다. 張珀는 開元18년(서기 730년)에 이미 衛尉卿이 되었다. 그는 또한 玄宗의 사위이기도 했다. 이로써 玉眞公主의 별장을 출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백과 張珀의 교유는 天寶년간부터 있었다. 때문에 이백이 장안에 막 들어와서 終南山에 머물면서 張珀의 도움을 갈망하였지만 결국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이백은 장안에서 정치에서 출로를 찾지 못했다. 郁賢皓는 『李白選集』에서 “張卿은 張珀이다. 張九齡의 「故開府儀同三司行尚書左丞相燕國公贈太師張公(說)墓志銘並序」의 「開元18年, 年차로는 庚午冬十二月戊申에 開府儀 同三司 行尚書 左丞相인 燕國公이 세상을 떠났다. ……長子 均은 中書舍人이고, 차자 珀은 駙馬都尉, 衛尉卿이다. 막내 淑은 符寶郎인데 상중에서 피눈물을 흘렸다」에 의거하면, 開元18년 전후로 衛尉卿은 張珀이다”라고 하였다.
- 56) 金張館: 옥진공주의 별장을 말한다. ‘金張’은 귀족을 비유한다. ‘金’은 원래 金日磾 가문으로 漢武帝 때부터 漢平帝 때까지 金家 七代가 內侍가 되었다. ‘張’은 張湯 가문을 말한다. 자손 가운데 십여 인이 계속해서 侍中, 中常侍 등의 직책을 맡았다. 후세에는 이로써 ‘金張’은 귀족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였다. 『漢書·張湯傳』에 “功臣의 世系에 오직 金氏·張氏만 있는데, 충에 받는 귀족들을 친근히 하고 외척에 가까웠다(功臣之世, 唯有金氏·張氏, 親近寵貴, 比於外戚)”라고 하였다. 左思「詠史」의 “아침에는 金氏·張氏 別館에 모이고(朝集金張館)”에 그 용례가 있다.
- 57) 繁陰: 장마 비로 인한 짙은 어두움.

空煙送雨色, 공중에는 짙은 안개 자욱하고 비라도 뿌릴 듯하더니
 蕭颯望中來.⁵⁸⁾ 가랑비 눈앞에서 처량하게 부슬부슬 내리는 구나.
 翳翳昏墊苦,⁵⁹⁾ 어두워지고 비가 많아 괴로우니
 沉沉憂恨催. 마음이 침울하고 근심과 한탄이 절로 나는구나.
 清秋何以慰,⁶⁰⁾ 맑고 상쾌한 가을에 무엇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볼까?
 白酒盈吾杯. 백주로 내잔 채워 마셔야겠지.
 吟詠思管樂,⁶¹⁾ 나는 읊조리면서 管仲과 樂毅를 생각하지만
 此人已成灰. 이들은 이미 한줌의 재가 되었네.
 獨酌聊自勉, 홀로 술잔 기울이며 잠시 스스로 면려할 뿐인데
 誰貴經綸才.⁶²⁾ 누가 세상 경륜할 수 있는 인재를 귀중하게 여기는

- 58) “蕭颯望中來”句: ○ 蕭颯(소삽): 처량하다. ○ 望中: 視野의 가운데.
 59) “翳翳昏墊苦”句: ○ 翳翳(예예): 빛이 어둡고 약해진 모양. ○ 墊苦(점고): 어지러워지고 물에 빠진다는 뜻으로, 수해를 당하여 고생함. 『尙書·益稷』의 “(넓디넓은 큰물은 산을 잠기게 하고 언덕을 뒤덮자)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물에 빠지고 했을 때(下民昏墊)”에 그 전고가 있다. 左思 「遊南亭」의 “한동안 병마에서 어지러워지고 물이 새서 괴로웠는데, 객사에서 교외의 갈림길 바라보니(久痾昏墊苦, 旅館眺郊歧)”에 그 용례가 있다. 張銑은 “어둡고 빠진다는 뜻이니, 이 장맛비의 고통에 그 괴로움을 말한 것이다(昏霧墊溺也, 言病此霖雨之苦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60) 清秋: 맑고 상쾌한 가을.
 61) 管樂: 管仲과 樂毅를 말한다. 管仲은 춘추 시대 齊나라 顯上 사람이다. 이름은 夷吾, 자는 仲이다. 鮑叔牙와의 깊은 우정을 나는 管鮑之交로 유명하다. 처음에 公子 糾를 섬겨 魯나라로 달아났다. 齊의 襄公이 피살당하자, 공자 규와 公子 小伯(桓公)이 자리를 두고 다투었는데, 공자 규는 실패하여 살해당하고 관중은 투옥되었다. 그 때 포숙이는 환공의 편에 섰는데, 그가 추천하자 환공이 지난날의 원한을 잊고 발탁하여 魯莊公 9년 卿의 지위에 오르고 仲父라 불리었다. 제도를 개혁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구분했다. 도성 또한 土鄉 15 곳, 工商鄉 6곳으로 나누고, 지방을 五屬으로 구획해 五大夫가 나눠 다스리도록 했다. 鹽鐵官을 두고 소금을 생산하면서 돈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상업과 수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원의 제후와 아홉 번 會盟하여 환공에 대한 제후의 신뢰를 얻게 했고, 남쪽에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楚를 제압하려 하였다. (제)환공은 春秋五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저작으로 『管子』가 있다. 樂毅는 魏나라 초기 무장 樂羊의 자손이다. 賢者이면서 전쟁을 좋아했다. 燕나라 昭王이 현자를 초빙한다는 말을 듣고 위에서 연으로 가 亞卿이 되었으며 후에 上將軍이 되었다. 趙·楚·韓·魏·燕의 군사를 이끌고, 당시 강대국임을 자랑하던 齊를 토벌하여 수도 臨淄를 함락시켰다. 그 후 5년에 걸쳐 齊나라의 70여 城을 함락시키고, 이들을 모두 郡縣으로 하여 연에 소속시켰다. 소왕이 죽고 惠王이 즉위하자, 제나라 田單의 이간책으로 죽을죄를 뒤집어쓰자, 조나라로 달아나 觀津에 봉해졌다. 그러나 혜왕이 그를 잃은 것을 후회하여 사죄해 왔기 때문에 연·조 두 나라의 客卿이 되었다. 『三國志·諸葛亮傳』에 “제갈량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자신을 관중, 악의에 비교하였다(亮躬耕隴畝,……自比於管仲、樂毅)”의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시인은 관중을 추모하며 當世에서 功業을 세우고자 생각하였음을 볼 수 있다.
 62) 經綸才: 국가를 다스리는 재량.

가?
 彈劍謝公子, 장검 두드리며 張公에게 감사라도 해야겠네.
 無魚良可哀.⁶³⁾ 나는 식사에 생선도 없으니 정말 슬프네.

〈校記〉

제목 아래 ‘長安’의 주가 咸本·蕭本·玉本·郭本에는 없다.
 제1구의 ‘秋’가 咸本·劉本·朱本·胡本·繆本⁶⁴⁾에는 모두 ‘愁’로 되어 있다.
 제3구의 ‘送’이 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嚴評本·全唐詩本·王本⁶⁵⁾
 에는 모두 ‘迷’로 되어 있다.
 제5구의 ‘壘’이 元刊二十六卷本⁶⁶⁾에는 ‘熟’으로 되어 있다.
 제7구의 ‘慰’가 宋蜀本에는 ‘尉’로 되어 있다. 咸本·郭本·劉本·全唐詩本·玉
 本에는 모두 ‘慰’로 되어 있다.

〈詳釋〉

가을 색 짙어가고 가을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나는 수심에 차서 옥진공주의 별
 장에 앉아있는데, 장맛비로 하늘에 깔린 짙은 어두움이 대낮이 되어도 개이질 않
 는다. 공중에는 짙은 안개 자욱하고 비라도 뿌릴 듯하더니, 가랑비가 눈앞에서 처
 량하게 부슬부슬 내린다. 날은 저물어 어두워지고 비는 연일 많이 내려 괴로우니,
 시간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침울하고 근심과 한탄이 절로 난다. 맑고 상쾌한
 가을에 장맛비를 만나서 울적하니 무엇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볼까? 오직 백주를
 내 술잔에 가득 채워 울적함을 풀어야겠다. 나는 읊조리면서 고대의 管仲과 樂毅

63) “彈劍謝公子，無魚良可哀。”二句：이 시구는 『史記·孟嘗君列傳』에 나오는 馮驩이 齊나라 孟嘗君의 문하에서食客이 되었을 때의 고사를 활용한 것이다. 馮驩이 맹상군의食客이었을 때 장검을 치며 노래하며 생활이 여의치 않음을 여러 차례 한탄하였다. “長劍이 돌아왔지만 먹는데 생선이 없고, 장검이 돌아왔지만 나가는데 수레가 없으며, 장검이 돌아왔지만 집으로 삼을만한 곳이 없구나!(長劍歸來兮，食無魚，長劍歸來兮，出無車，長劍歸來兮，無以爲家!)”라고 하였다. 나중에 ‘彈劍’ 혹은 ‘彈鋏’으로 생활이 궁핍하여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비유하였다. 이 시에서는 시인이 馮驩으로 자신을, 公子로써 張垺를 비유하였다.
 64) 淸 繆曰芑의 송축본을 영인한 『李翰林集』 30卷.
 65)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 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의 조판본 『李太白全集』.
 66) 元刻 『唐翰林李太白集』 26卷.

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미 한중의 재가 되어버렸다. 홀로 술잔 기울이며 잠시 古人으로 스스로를 면려하지만, 지금 누가 세상을 경륜할 수 있는 인재를 중시하는가? 이에 당시 馮驩이 장검을 두드리며 노래하였던 것을 배워 시를 지어 公子 張珀에게 감사라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이곳 공주의 별장으로 왔건만 먹는데 생선반찬도 없고, 탈 수레도 없으며, 살만한 집도 없으니 결국 비애감만 넘친다.

〈解說〉

이 시는 李白이 開元19년(서기 731년) 장안에 처음 들어와⁶⁷⁾ 終南山에 은거할 때 옥진공주의 별장에서 衛尉卿 張珀에게 쓴 작품이다. “이백이 長安에 들어온 것은 본래 張說·張珀 父子의 천거를 통해 玄宗에게 중용 받아 포부를 펼치고자 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張氏 父子의 冷待를 받아 그를 종남산 아래 玉眞公主의 별장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곳에서 또 연속되는 장마를 만나고 생활이 어려워졌다. 시인은 우롱 받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두 시를 지어 그 憤懣을 드러내었다.”⁶⁸⁾

첫 수는 시인이 질어가는 가을 玉眞公主의 별장에서 장맛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장안에 와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속에 쌓인 번민, 우울을 표현하고 또한 생활의 곤궁을 묘사한 것이다.

매구의 정경묘사와 사용한 시어들 모두 시인의 심정과 곤궁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백의 분만은 사실 그가 管仲과 樂毅와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長安에 와서 왕후, 귀족의 천거를 통해 세상을 경륜할 수 있는 재주를 펼치고자 하였지만 천거를 받지 못하고 출로가 막힌 암담함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시인은 당시 王門의 張珀에게 자신의 천거를 간절하게 원하였고, 그에게 희망을 가졌다. 이로써 시인은 張珀를 당시의 孟嘗君에게, 자신을 馮驩에 비유하고 그에게 곤궁을 호소하며 천거를 고대하였다. 결미에서는 시인의 희망과 달리 실망의 뉘앙스가 풍겨

67) 이백이 장안에 들어온 시기를 開元18년(서기 730년)으로 보는 설도 있다.

68)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 「玉眞公主別館苦雨贈衛尉張卿二首」 3.創作背景. 詹鏗·鬱賢皓·詹福瑞 등은 이러한 창작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으로 볼 때 百度百科의 창작배경 해설은 설득력이 있다.

남을 느낄 수 있다. 첫 수는 시인의 번민과 우울의 심정을 묘사함으로써 그 풍격은 침울하다. 이로써 이백의 豪放의 풍격은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6) 제16수 옥진공주의 별장에서 장맛비 내리는 데 張 衛尉卿께 드림
2수-장안에서(玉眞公主別館苦雨贈衛尉張卿二首 長安)

(其二) (제2수)

苦雨思白日,	오랜 장맛비에 햇빛이 그리워지니
浮雲何由卷. ⁶⁹⁾	뜬 구름 어찌해야 걷히어 질까?
稷高和天人, ⁷⁰⁾	后稷과 契는 하늘과 사람을 조화롭게 하였는데
陰陽仍驕蹇. ⁷¹⁾	지금은 陰陽이 어그러져 조화를 잃었네.
秋霖劇倒井, ⁷²⁾	가을 장맛비 우물이 거꾸로 쏟아지듯 내리고
昏霧橫絕巘. ⁷³⁾	저녁 안개는 저 높은 산봉우리에 가로 놓여 있다.
欲往咫尺途,	지척 거리라도 가보려 하는데
遂成山川限.	결국 높은 산과 큰 내가 가로막네.
濛濛奔溜瀉, ⁷⁴⁾	칼칼 소리 내며 빗물은 급속히 흘러내리고
浩浩驚波轉. ⁷⁵⁾	넓디넓게 솟구치는 물결은 휘돌아가네.

69) “苦雨思白日，浮雲何由卷。”二句: 오랜 비가 그치지 않아서 햇빛을 그리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浮雲이 걷히어 비가 거두어질까라는 뜻이다. 曹丕의 「秋霖賦」에 “해가 밝지 않음을 슬퍼하네(悲白日之不陽)”라는 구절이 있다.

70) “稷高和天人”句: ○ 稷高: 舜 임금의 名臣인 后稷과 高을 합칭한 말이다. ‘高’은 ‘契’와 같다. 后稷은 周나라의 시조이며, 高은 殷나라의 시조이다. 이곳에서는 당시 집정한 재상을 비유하였다. ○ 和天人: 음양이 조화됨을 말한다. 또는 天意와 民意가 조화된 것을 말할.

71) 驕蹇(교건): 음양이 조화를 잃다. 또는 오만하다. 순종하지 않다. 『漢書·劉長傳』에 “오만하여 여러 차례 법을 받들지 않았다(驕蹇數不奉法)”라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음양이 조화를 잃음의 뜻이다.

72) “秋霖劇倒井”句: ○ 霖: 장맛비. 『左傳·隱公九年』에 “무릇 비가 3일 이상 내리는 것을 霖이라 한다(凡雨，自三日以往爲霖)”라고 하였다. ○ 劇: -보다 심하다. 더욱 심하다. ○ 倒井: 우물이 거꾸로 쏟아지다. 비가 대단히 세게 내리는 것을 형용한다. 傅玄 「雨詩」의 “장마 비가 마치 우물이 거꾸로 쏟아지는 듯하고, 길 위 황토 물에는 큰 강물이 일어난다(雨霖如倒井，黃潦起洪波)”에 그 용례가 있다.

73) 絕巘(절원): 매우 높은 산봉우리. 張協 「七命」의 “이에 깎아지른 산봉우리에 오르는데, 거센 바람을 맞네(於是登絕巘，溯長風)”에 그 용례가 있다.

74) “濛濛奔溜瀉”句: ○ 濛濛: 물소리. 鮑照 「過銅山掘黃精」의 “칼칼 가을 강물 모이네(濛濛秋水積)”에 그 용례가 있다. ○ 奔溜: ‘奔流’와 같음. 물이 매우 급속히 흐르다.

泥沙塞中途, 진흙과 모래가 길에 가득차고
 牛馬不可辨.⁷⁶⁾ 맛은편은 소가 있는지 말이 있는지 분간할 수 없구나.
 飢從漂母食.⁷⁷⁾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고,
 閑綴羽林簡.⁷⁸⁾ 한가할 때는 좀 벌레 먹은 책들을 수선하네.
 園家逢秋蔬, 농가 채마밭 채소들이 가을 한기를 만나니
 藜藿不滿眼.⁷⁹⁾ 명아주와 콩잎마저 눈에 찰만큼 풍족하지 않네.

- 75) “浩浩驚波轉”句: ○浩浩: 물이 기세가 거센 모양. ○驚波: 놀랄만한 큰 물결, 솟구치며 공포심을 일으키는 물결. 張衡「西京賦」의 “홀어지면 놀랄만한 큰 물결과 같고, 모아지면 거대한 언덕과 같다(散似驚波, 聚似巨峙)”에 그 용례가 있다.
- 76) “牛馬不可辨”句: 『莊子·秋水』에 “가을에 물이 불어날 때면 모든 시냇물이 황하로 모여들어 크게 넘실거리며 흐른다. 물결의 광대함은 양쪽의 독이나 모래톱의 가운데에 있는 소나 말을 구분할 수가 없다(秋水時至, 百川灌河, 涇流之大, 兩渚崖之間不辨牛馬)”라고 하였다. 陸明德은 “辯은 구별(別)함이다. 廣大하기 때문에 바라보아도 분별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辯, 別也, 言廣大故望不分別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 77) “飢從漂母食”句: ○漂母: 빨래하는 아낙. 『史記·淮陰侯列傳』에 “회음후 한신은 회음 출신이다. …… 한신이 성 아래에서 낚시질을 할 때 여러 아낙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아낙이 한신의 배고픔을 살피고 그에게 밥을 주었는데, 빨래를 다 마칠 때까지 수십일 동안 주었다. 한신이 기뻐하며 ‘제가 그대에게 반드시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 여인이 화를 내며 ‘대장부가 제 힘으로 밥도 못 먹기에 내가 그대를 불쌍하게 여겨 밥을 주었을 뿐인데 어찌 보답을 바라겠소?’라 하였다. …… 한신은 초나라에서 도망하여 한나라로 귀순했다. …… 한나라 왕은… 그를 대장으로 삼았다. 한나라 5년에 제나라 왕 한신을 옮겨서 초나라 왕으로 삼고 하비에 도읍하였다. 한신이 초나라에 이르러서 이전에 자신에게 밥을 먹여준 빨래하는 아낙을 불러 천금을 하사하였다(陰侯韓信者, 淮陰人也. …… 信釣於城下, 諸母漂, 有一母見信飢, 飯信. 竟漂數十日. 信喜謂漂母曰: ‘吾必有以重報母.’ 母怒曰: ‘大丈夫不能自食, 吾哀王孫而進食, 豈望報乎?’ …… 信亡楚歸漢, …… 漢王 …… 以爲大將. 漢五年, 徙齊王信爲楚王, 都下邳. 信至國, 召所從食漂母, 賜千金)”라는 전고가 있다.
- 78) “閑綴羽林簡”句: ○綴: 『廣韻』에서 “綴은 연결하여 깎다의 뜻이다(綴, 連補也)”라고 하였다. ○羽林: 송축본에는 ‘羽林’으로 되어 있지만, 기타 판본에는 ‘羽陵’으로 되어 있다. ‘羽陵’으로 보는 것이 옳다. ‘羽陵’은 옛날 지명이다. 『穆天子傳』卷五에 “仲秋 甲戌에天子가 동쪽으로 유람하다가 雀梁에서 며칠을 숙박하였는데, 羽陵에서 좀 먹은 책들 햇볕에 쬐어 말렸다(仲秋 甲戌, 天子東遊, 次於雀梁, 曝蠹書於羽陵)”라고 하였다. 郭璞은 “책 속의 좀을 햇볕을 쬐어 없애는 것을 말하는데, 두서라 한다(謂暴書中蠹蟲, 因云蠹書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훗날 ‘羽陵’으로 옛 황실의 秘籍을 보관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南朝) 陳의 徐陵의 『玉臺新詠·序』에 “악기를 없애고 향기를 내어서, 그런대로 羽陵의 좀을 막는다(辟惡生香, 聊防羽陵之蠹)”라고 하였다. ○簡: 서적
- 79) “園家逢秋蔬, 藜藿不滿眼.”二句: ○園家: 채소밭을 경영하는 농가. ○藜藿: 명아주와 콩잎, 초라한 찬과 밥, 빈천한 사람이 먹는 야채 등의 뜻이 있다. 『韓非子·五蠹』의 “매조미나 기장으로 밥을 짓고, 명아주나 콩잎으로 국을 끓이네(糲粢之食, 藜藿之羹)”에 그 용례가 있다. 『文選·曹植「七啓」』의 “나는 명아주나 콩잎 국을 달게 먹고(予甘藜藿)”에 그 용례가 있다. 劉良은 “藜藿은 변변치 못한 음식으로 벼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다(藜藿,

蠨蛸結思幽,	내실은 갈거미 줄 가득 쳐져 깊은 생각 일으키고
蟋蟀傷福淺. ⁸⁰⁾	귀뚜라미 소리 들으니 객실이 험소하고 누추함을 느끼네.
廚竈無青煙,	아궁이에는 푸른 연기 피어오른 적 없고
刀機生綠蘚. ⁸¹⁾	칼과 도마에는 푸른 이끼만 끼어있네.
投筋解鸛鷄. ⁸²⁾	젓가락 내던지고 숙상 깃털 옷 벗어서
換酒醉北堂.	술로 바꾸어 북당에서 취하네.
丹徒布衣者,	당시 단도(丹徒) 포의 유목지(劉穆之)는 한때 곤궁했지만
慷慨未可量.	그 강개한 뜻은 헤아릴 수 없었지.
何時黃金盤,	언제라야 나도 황금 쟁반에
一斛薦檳榔. ⁸³⁾	빈랑을 가득 담아 보낼 수 있을까?

賤菜, 布衣之所食)"라고 주석을 달았다. ○ 滿眼: 시야를 충만 시키다. ▷ 郁賢皓와 詹福瑞는 이 두 구를 "채소밭에는 오직 명아주와 콩잎과 같은 희소한 야채만 있다"라는 취지로, 詹鏞은 "채소 밭 채소들이 가을 한기에 비록 명아주와 콩잎이라도 공급되지 못하는 바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본 해석은 詹鏞의 설을 취하였다.

- 80) "蠨蛸結思幽, 蟋蟀傷福淺."二句: ○ 蠨蛸: 갈거미를 말한다. 『詩經·邶風·東山』에 "갈거미가 문에 있으며(蠨蛸在戶)"라고 하였다. (五代)馬縞의 『中華古今注·長跂』에서 "蠨蛸는 몸이 작고 발이 길기 때문에 長跂라고 하였다. 작은 거미로서 발이 길다. 세속에서는 蟪子라고 불렀다(蠨蛸也, 身小足長, 故謂長跂, 小蜘蛛長脚也, 俗呼爲蟪子)"라고 하였다. ○ 蟋蟀: 귀뚜라미. 『詩經·唐風·蟋蟀』에 "집안에 귀뚜라미, 한 해도 저물어간다. 지금 내가 즐기지 않으면, 세월은 그냥 가버린다(蟋蟀在堂, 歲聿其莫. 今我不樂, 日月其除)"라고 하였다. ○ 福淺: 험소하고 陋淺(누친)함. 궁핍을 형용. ▷ 이 두 구는 내실에 가득 쳐진 갈거미 줄을 보고 고적감을 느끼고,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자신의 거처가 변변치 않음을 슬퍼한 것이다.
- 81) 刀機: 칼과 도마. '機'는 '幾'와 같음. '刀'는 고기를 썰는 것, '機'는 고기를 올리는 것.
- 82) "投筋解鸛鷄."句: ○ 投筋: 젓가락을 던짐. 먹지 않음을 나타낸다. ○ 鸛鷄(숙상): 기러기의 일종으로 전설상에 西方을 지킨다는 神鳥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숙상의 깃털로 짠 옷을 말한다. 『西京雜記』卷二에 "사마상여는 처음에 탁문군과 더불어 성도에 돌아왔다. 빈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심과 번민이 많았는데 神鳥인 숙상의 깃털을 만들어 상인 양창에게 가서 외상술을 받아다가 탁문군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했다(司馬相如, 初與卓文君還成都. 居貧愁懣, 以所著鸛鷄裘, 就市人陽昌貰酒, 與文君爲歡)"라고 하였다.
- 83) "丹徒布衣者, 慷慨未可量. 何時黃金盤, 一斛薦檳榔"四句: 이 네 구는 劉穆之의 전고로 시인 자신을 비유하여 張伯을 암암리에 풍간한 것이다. 劉穆之의 전고는 『南史·劉穆之傳』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諸葛長民(역주: 원문의 長人은 長民이 옳음)이 친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가난한 자는 항상 부귀를 생각하게 되고, 부귀한 자는 필히 위기를 겪게 된다. 오늘 날에 丹徒에서 포의가 되려고 생각하지만 될 수 없다.……劉穆은 어렸을 때 가정은 빈천하고 방종하였으며 술과 먹는 것을 좋아하고 검속을 수양하지 않았다. 처형 집에 가서 걸식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번 굴욕을 당하였지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처 江嗣女는 사리를 매우 잘 알아서 강씨에게 가지 못하게 금지하였다. 나중에는 경사스런 연회가 있어도 오지

功成拂衣去, 공을 이룬 뒤에는 옷을 털고 떠나
 搖裔滄洲旁.⁸⁴⁾ 滄洲에서 이리 저리 거닐고 싶네.

〈校記〉

제3구의 '高'이 朱本에는 '契'로 되어 있다.

제4구의 '陽'이 嚴評本에는 '靈'로, '仍'이 蕭本·郭本·王本에는 '乃'로 되어 있다.

제9구의 '瀉'가 蕭本·玉本·郭本·朱本·嚴評本·全唐詩本·王本에는 '聞'으로 되어 있다.

劉本의 경우는 注에서 “奔溜瀉가 어떤 판본에는 奔溜聞으로 되어 있다(奔溜瀉一作奔溜聞)”라고 하였다.

제14구는 宋蜀本에서 “閑綴羽林(一作陵)簡”으로 되어 있다. 咸本·蕭本·玉本·郭本·劉本·嚴評本·全唐詩本·王本에는 '陵'으로 되어 있다.

제28구의 '裔'가 咸本·蕭本·郭本·劉本·嚴評本·全唐詩本·王本에는 모두 '曳'로 되어 있다. 劉本의 경우는 注에서 “搖曳는 어떤 판본에는 搖裔로 되어 있다(搖曳一作搖裔)”라고 하였다. '旁'은 蕭本·朱本·王本에서 '傍'으로 되어 있다.

〈詳釋〉

말라고 주의시켰다. 유목은 그래도 가서 식사를 마치고 檳榔 나무에서 나는 과실을 요구하였다. 강씨의 형제들이 그를 놀리며 ‘빈랑은 소화를 돕는 것이니, 자네는 이에 늘 배고플 터인데 어찌하여 이것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유목이 丹陽의 관리가 되자, 그의 처의 형제들을 부르려 하니, 처가 감응하여 이마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 절하며 감사하였다. 유목이 ‘본래 원망을 숨기지 않았기에, 근심을 불러일으킬 바가 없었소.’라고 하였다. 취하고 배 부르자, 숙수에게 명하여 빈랑을 금 쟁반 한 가득 담아서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長人謂所親曰: ‘貧賤常思富貴, 富貴必踐危機. 今日思爲丹徒布衣, 不可得也.’……穆之少時, 家貧, 誕節, 嗜酒食, 不修拘檢, 好往妻兄家乞食, 多見辱, 不以爲恥. 其妻江嗣女, 甚明識, 每禁不令往江氏. 後有慶會, 屬令勿來. 穆之猶往, 食畢求檳榔. 江氏兄弟戲之曰: ‘檳榔消食, 君乃常飢, 何須須此?’……及穆之爲丹陽尹, 將召妻兄弟, 妻泣而稽顙以致謝. 穆之曰: ‘本不匿怨, 無所致憂.’ 及至醉飽, 穆之乃令廚人以金杵貯檳榔一斛以進之.)”

84) “搖裔滄洲旁”句: ○ 搖裔: ‘搖裔’의 ‘裔’가 여러 판본에는 ‘曳’로 되어 있는데, 朱諫은 “曳가 어떤 곳에는 裔로 되어 있다. 李白的 「古風」에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는 한 쌍의 흰 갈매기(搖裔雙白鷗)’라고 하였는데 모두 왕래가 정처 없는 모양이다(曳, 一作裔. 白「古風」云搖裔雙白鷗, 皆往來不定貌)”라고 하였다. ○ 滄洲: 濱水 지역이다. 옛날에 이로써 은자들의 거처를 나타내었다. 謝朓 「之宣城出新林浦向版橋」의 “이미 관록에 대한 정을 품고 기뻐하였지만, 다시 滄洲의 뜻을 품고자 하네(既歡懷祿情, 復協滄洲趣)”에 그 용례가 있다.

장맛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햇빛이 그리워지는데, 뜬 구름은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걷히질 모르겠다. 唐虞시대의 현신 稷과 契는 천의와 인심을 조화롭게 했는데, 지금은 陰陽의 조화가 어그러져서 장마 비가 그치지 않고 지속되어 햇빛을 볼 수 없다. 가을장미는 우물을 거꾸로 쏟아 붓 듯 줄기차게 내리는데, 저녁 안개는 높은 산봉우리에 가로 놓여 깔려있다. 지척 거리라도 나가보려하지만, 결국에는 높은 산과 큰 내가 가로막는다. 빗물은 팔팔 소리 내며 급속히 흘러내리고, 넓디넓게 솟구치는 물결은 공포를 일으키며 휘돌아간다. 길에는 진흙과 모래가 가득차서 갈 수 없고, 맞은 편 언덕은 소가 있는지 말이 있는지 분간할 수 없다. 韓信이 뜻을 얻지 못했을 때 빨래하는 아낙에게 밥을 얻어먹은 것처럼 나도 지금 다른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고, 한가할 때는 좀 벌레 먹은 책을 햇볕에 쬐어 말리고 책들을 수선하며 시간을 보낸다. 농가 채소밭 채소들은 가을 한기를 만나서, 비록 명아주와 콩잎이라도 눈에 가득 찼만큼 풍족하지 않으니, 이것조차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실내에는 거미줄 가득 쳐져 깊은 생각을 일으키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들으니 살 곳이 협소하고 누추하여 상심한다. 부엌 아궁이는 푸른 연기 피워 밥을 한 적이 없고, 칼과 도마에는 음식을 한 적이 없어 푸른 이끼만 끼어 있다. 젓가락을 내던지고 숙상의 깃털로 잔 옷을 벗어서, 술로 바꾸어서 북당에서 취한다. 무릇 선비는 비록 빈천하지만 그 포부는 항상 작지 않았으니, 丹徒에서 布衣되려한 劉穆之가 때를 만나지 못하여 처형 집에 결식하였지만, 그 가슴에 품었던 강개한 뜻, 전도는 헤아릴 수 없다.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처럼 뜻을 얻어 황금쟁반에 檳榔을 한 가득 담아서 보내고 싶다. 공적을 이루고 옷을 털고 떠나서, 滄洲 지역으로 가서 자유자재로 은거하며 지내고 싶다.

〈解說〉

둘째 수는 첫 수와 창작배경 및 詩意가 대략 비슷하다. 이 시는 그 내용에 따라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제1구에서 제12구까지 이다. '苦雨'가 내리는 정경이 매우 휩진하면서도 섬세하게 묘사되었다. 그 묘사는 비유적이며 생동적이다. 시인은 '苦雨'가 내리는 상황을 '倒井'으로, 오랜 장마가 지속되는 상황을 음양이 어그러졌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濶濶', '浩浩' 등으로 '苦雨'가 급속히

흘러가는 모습, 바다를 이룬 모습을 생동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시인의 이러한 정경묘사는 모두 당시의 암담한 정치현실을 나타내고 天意와 人心의 조화가 상실되었음을 비유한다. 둘째 단락은 제13구에서 제22구까지 이다. 옥진공주의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과 의식주에 있어서 곤궁한 생활을 매우 핍진하게 묘사하였다. 특히 제13,14구의 '漂母', '羽林' 등은 과거 사례를 들어 자신의 생활을 묘사한 것인데, 전고의 사용이 적확하다. 客館에서의 곤궁한 생활에 대한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이러한 필치는 또한 독자에게 큰 호소력과 공감을 준다. 셋째 단락은 제23구에서 제28구까지 이다. 劉穆之로써 자신을 비유하여 자신도 장래에 희망이 있으며 뜻을 얻어 檳榔으로 보답하겠다는 염원을 표현하였다. 이로써 자신을 냉대했던 張垞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성공을 입증시키겠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 또한 공을 세우고 은거하려는 지향을 표현하였다. 詩意는 때로는 직접적 때로는 은유적으로 단락별로 주지가 분명하다.

이 두 수를 통하여 시인은 현실의 고통과 실망 속에서도 자신의 뜻과 희망을 지향하는 인물형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을 준다.

3. 결론

이상 6수 작품은 각각 狄博通, 韋參軍, 周惟長, 張垞에게 보낸 시이다. 제11수는 친구 狄博通에 대한 깊은 우정을 표현한 것이다. 자구 이면에는 친구에 대한 관심, 염려, 기원 등이 충일되어 있다. 이 작품은 작은 화폭이지만 거대한 예술 형상을 구성하여 광대한 기상을 느끼게 한다. 이른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총괄(以少總多)'하는 수법이 특색이다. 또한 예술 형상을 생동적으로 묘사하여 '부르면 나올 듯(呼之欲出)'한 경지에 이르렀다. 전체 시를 발문으로만 구성한 것 또한 특색이다.

제12, 13수는 韋參軍이 폄적되어 가다가 사면을 받아 임지로 가는 도중에 그를 만나고서 감정을 묘사한 것이다. 일련의 연작시이다. 첫 수(제12수)는 위참군이

멀리 폼적당한 것을 탄식한 것이다. 시인이 위참군이 폼적되어 떠도는 처지, 고초를 동정하여 흘리는 눈물은 또한 독자에게 일종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며 눈물을 머금게 한다. 시인은 눈물과 관련된 '日南'의 진주 고사를 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한층 돌출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 수(제13수)는 위참군에게 '量移'를 슬퍼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다. 시어 및 경물은 위로와 권면의 감정으로 채색되어 있다. 첫 수에서 눈물과 탄식이 둘째 수에서는 희망과 기약으로 전환되고 전체 시의 말구에서 은거 내지는 탈속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백의 연작시에서 보이는 특색이다.

제14수는 周惟長の 은거생활을 묘사하고 그의 삶을 동경하는 감정을 묘사하였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卞和'의 전고를 다층적으로 인용하였다. 「早秋贈裴十七仲堪」의 “荊人泣美玉” 등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사용하였지만, 본 작품에서는 “抱石恥獻玉”라고 하여 옥돌을 바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상황으로 인용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고사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변화 있게 사용하고 있다. 말미에 '羽化登仙'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었다.

제15, 16수는 가을 장맛비에 옥진공주의 별장에서 머무르면서 張珩에게 자신의 복잡다단한 심경을 표현하고 생활의 궁핍을 호소하고 있다. 두 편의 연작시로서 그 편폭이 매우 길다. 두 편의 작품의 시어, 정경, 분위기, 풍격은 모두 침울하고 우울하다. 이것은 당시 시인의 내면과 암담한 정치현실을 나타낸다. 시인은 작품에 管仲과 樂毅와의 고사, 孟嘗君과 馮驩, 漂母, 劉穆之 등 각종의 전고를 다량으로 채용하여 자신의 감정, 상황, 염원을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각종의 정경묘사는 매우 짙진하고 생동적으로 묘사하였다. 이것은 객관 환경을 최대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자신의 주관감정을 극도로 억제시킨 것으로 자구 이면에 거대한 '張力'을 형성시켰다. 이로써 함축미가 극대화되어 독자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李白的 '贈'詩는 모두 시를 받는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더불어 자신의 역량, 처지, 회재불우, 생활고 등의 상황을 묘사하며 出仕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이로써 '贈'詩에서는 현실을 초탈한 신선이 아니라 현실 삶에서

방향하고 고뇌하는 이백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贈'詩가 '古風', '登覽', '懷古' 등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贈'詩는 李白의 시 세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진지한 탐구의 대상이다.

〈參考文獻〉

- 王琦 輯注, 『李太白詩集注』, 北京: 中華書局, 1977.
 瞿蛻園·朱金城,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韓嬰 著, 許維通 集釋, 『漢詩外傳集釋』 권9, 北京: 中華書局, 1980.
 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成都: 巴蜀書社, 1985.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彭定求 等編,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2.
 郁賢皓, 『李白大辭典』, 桂林: 廣西教育出版社, 1995.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詹福瑞,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陳貽焮主編, 『增訂注釋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
 蕭士贊, 『分類補注李太白詩』,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 臺北: 三民書局, 2011.
 丁放, 袁行霈, 『盛唐詩壇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옮김, 『이태백 시집3』, 서울: 學古房, 2015.
 楊曉玲·夏小鳳, 「從李白的贈詩看其對人物“風流”的品藻」, 『宜春學院學報』, 2011년 제7기.

〈Abstract〉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Libai's <Presented Poems>(3)-from The 11th Poem to The 16th Poem

This study is a set of translations and annotations in a consecutive order on poem 11 to 16, from the 8th volume 'Presented Poems(贈詩)' of Libai(李白)'s 『a collection of

Litaibo(李太白)'s works』, which specifically covers 6 poems. The original text is given for each of the subject poems, which are translated, commented in a consecutive manner. Compare, comparison and correction on the given texts, detailed explanations follows.

The 11th poem is the poem written by Li Bai after meeting Di Botong(狄博通), and explains the deep relationship with Di Botong in much detail. The poem is full of the poet's concerns, worries, and prayers for the poet's friend.

In the 12th poem, Li Bai has been exiled from position, and coincidentally met Wei Canjun(韦参军), who has been pardoned to weep at his hardships and feel heartbroken at his state.

In the 13th poem, the region where Wei Canjun is pardoned and starts to work at has magnificent view that they console him not to be saddened, and to enjoy at a place with a great view if they have the opportunity.

In the The 14th poem, Li Bai meets Zhou Chushi(周处士) to describe the view where Zhou Chushi lives, and also the life and the hearts of Zhou Chushi, to depict his wishes to be a Taoist hermit with miraculous powers with Zhou Chushi.

In the The 15th poem, where the fall grows on and the rainy season rains on, the anguish and the depression accumulated from not achieving the goals in Changan(长安) and also the hardships of life are depicted.

The 16th poem depicts the depressing political reality and his own poor situations, and expresses his will and hope even within the agony and the disappointments of the reality.

Key Words: Translation, Annotation, Presented Poems, Libai, Compare, Comparison

이 논문은 2015년 7월 8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